

# “한국불교 세계 알리는데 힘쓸 것”

## 세계 최대 불교출판사 사무엘 버콜즈 사장 내한

### 포교사 대상 특별강연·월정사 등 사찰 방문

“강원도 상원사와 월정사 선방에서 인거에 든 스님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수정처럼 맑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대 불교출판사 사무엘 버콜즈(Samuel Bercholz, 55) 사장. 21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불교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불교 포교에 애쓰느라 수고가 많은 도영 스님의 말에 버콜즈 사장은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작은 봉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개신교와 불교를 비교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서양 사회에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현대불교”(대표 김형근) 주선으로 방한. 강연과 사찰 순례

등 열흘간의 일정으로 16일 내한한 버콜즈 사장은 내한 이틀 뒤인 18일 삼발라센터 한국분원 주최로 서울 정신세계원에서 특강한데 이어, 19-20일 월정사와 상원사, 낙산사 등 사찰을 방문했다. 21일 조계종 도영 포교원장을 예방하고 국제포교사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22-26일에는 영호남과 충청지역 사찰을 둘러봤다.

서구사회에 처음으로 티베트 불교를 전한 트롱파(Tsongpa) 린포체의 지도로 불교에 본격 입문한 그는 티베트 카규, 니마파의 법사로



◇21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왼쪽)을 만나 뉴욕 한미불교문화원 설립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버콜즈 씨. 사진=남동우기자

해의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igkim@buddhania.com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36. 연담과 목암의 심성논쟁

1785년 10월 지리산 천은사의 상선암에서 조선불교계의 대각승, 연담유일(蓮潭一, 1720-1790)의 제자들이 화일(華日), 경원(敬賢)등은 논쟁을 끊기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스승 연담유일과 동시대의 대각승 목암최월(默庵最月, 1717-1790)이, 심성(心性)이라는 논제에 주고받은 왕복서간을 불태워버리고 만다. 작은 분서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성론 소각사건은 속악한 우월 논쟁으로 치달리기 쉬운 사람들의 알팍한 생각을 보여주는 오랜 악습이기도 하지만 맹목주의자들의 실수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며 조선후기 불교학의 진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망실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다. 연담유일과 목암최월은 서로 시문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숙한 도반으로서 동문수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에 관한 두 분의 관점은 서로 달라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

심이 모두 같으니 후생으로서 누가 감히 어길까(先聖皆同說 厚生孰敢違)라는 계승으로 자신의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즉 두 스님 모두 심성의 자족적 완결을 의미하는 원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목암스님은 일심(一心)을 약기(約機)를 주안으로한 득법분재(得法分齊)의 연기론(緣起論)으로 파악하고 있고 연담스님은 일심을 약법(約法)을 주안으로한 성비중덕(性備衆德)의 성기론(性起論)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스님의 대론 주제였던 일심사상은 대승불교의 총위(總位)가 높은 교학이 집약된 상징적인 주제이다. 즉 대승불교의 일심사상은 유식(唯識)의 아뢰야식연기론과 화엄의 유심론적 교리, 기신론의 여래장사상에서 정교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바로 마음의 사상이 대승불교성성의 이념적 핵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한다면 선(禪)과 교(敎) 양자 모두 이

## 두 스님의 서로 다른 심성론 화엄교가 논쟁으로 큰 의미

런 것이다. 1775년 가을 송광사 감로암에서 이루어진 이 대론의 요지는 <심성론(心性論)> 3권으로 정리되고 연담유일 스스로 <심성론서>를 쓰고 있다. 이 소각사건을 두고 장각 대론의 당사자인 목암최월은 “십년동안 쌓아올린 공을 생각하니 가히 애석할 뿐이다(十年收集之功 思之可惜)”이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현재 심성론은 남아있지 않고 연담유일의 <입하록>에 수록된 <심성론서(心性論序)>만이 남아 그 대론의 면모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필자 나름대로 <심성론서>와 <입하록>에 보이는 단편적인 기사들을 통해 본 심성논쟁의 요지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목암은 “여러 부처님과 중생들의 마음은 각각 원만하여 일이라고 할 수 없다(諸佛衆生之心 各各圓滿 未會一箇者)”라고 주장하고 계승으로 “나는 지금 뜻대로 홀로 돌아가나니 남들이 걷는 곳으로는 따라가지 않으리라(俄今任獨歸 勿行行處去)”라고 자신의 견해를 증성(證成)한다. 이에 비해서 연담유일은 “여러 부처님과 중생들의 마음이 각각 원만하여 원래 일개이다(各各圓滿者 元是一箇者)”라고 주장하고 “앞서 가신 성현의 학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담스님 자신이 그토록 정통했던 화엄경이 설하고 있는 불교 이해 또는 체험이란 먼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붓다의 직관을 체험하고자 정진하는 것이며, 그 직관을 생의 중심에 투영시킨 체험을 실존적인 전체(全體)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그 붓다 화엄의 깨달음, 그 근본적 세계관을 사상과 운동의 동력으로 가지면 서도 동시에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전제를 투입하려면 반드시 심성의 문제가 검토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연담유일과 목암최월 두 화엄종장의 심성대론은 백파금선(白波巨鯨)의 <선문수경(禪文手鏡)>으로 촉발된 조선후기 선화쟁과 비견할만한 화엄교가의 논쟁으로 실로 큰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이응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조선선문의 심성설에 관한 변쟁은 진실로 목암과 연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朝鮮禪門心性說之辯爭 固已肇始於默庵與蓮潭之時)”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필자의 김직스런 입적으로 연재를 중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니다.

## “수익 불서번역·연구비 재투자”

### 사무엘 버콜즈 사장과 일문일담

### 삼발라국제센터 세계 200여곳에 지부 美 불교수련원서 수행·수계... 범명 헤럴드

티베트의 마하무드라적 선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전망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서경보 스님

음으로 한국 선의 정수를 전한 포교사제를 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서경보 스님의 인연은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북미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



◆삼발라출판사 성공 비결은 “성공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창립 이후 25년간은 고생도 많이 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한 점일 것이다. 그동안 퍼낸 수천여권의 책중 불사가 절반 이상이었다. 각종 중앙학 및 종교 관련서와 채식 요리서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불서 번역 및 연구비로 재투자했다.”

◆“삼발라(Shambhala)의 뜻은 ‘삼발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전설적인 불교왕국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전통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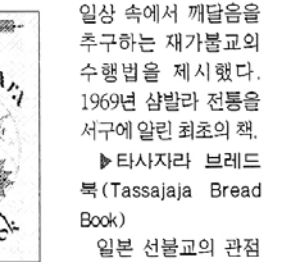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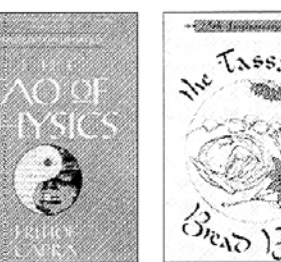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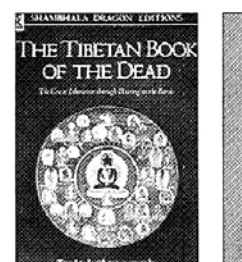
◆삼발라 국제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스승인 트롱파 린포체(서구에 맨 먼저 불교를 전한 스님 중 한 명)가 설립한 삼발라국제센터는 캐나다 노바스코시리아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200여 지부를 갖고 있다. 나는 이 단체의 교사(teacher)로서, 격월간 계간지인 <삼발라 선>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서구 전파가 성공한 이유는 “많은 스승들이 마음을 열고 가슴과 가슴으로 가르침을 전한 것

이 가장 중요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갈 곳이 없어진 티베트 스님들은 영어를 배우며, 서구인들의 근기에 맞춰 불법을 전했다.”

◆한국 사찰을 둘러본 소감은 “상원사 선방에서 정진중인 두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을 온 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한국 수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려깊은 대화와 유머 감각을 통해 스님들의 수행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과 티베트 불교의 차이점은 “티베트 불교는 각 유파의 특성이 잘 보존되면서 공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 불교는 통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두 전통 모두 수행과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매우 많다. 한국의 간화선 수행과



### ▶ 티베트 사자의 서(The Tibetan Book of the Dead)

1927년 에반스 헨츠에 의해 영역된 이후 티베트 불교가 서구의 관심을 끌게 한 최초의 책. 죽음이후의 49일간의 중음(中陰) 상태와 운회 과정에 대한 원리의 수행법을 다룬 경전이다. 트롱파 린포체의 주석을 첨부해 1975년 재출간했다.

### ▶ 물리학의 도(The Tao of Physics)

동양의 종교와 서구의 과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들여다 본

◆행선(Mediation in Action) 티베트 불교를 처음 영국으로 전한 트롱파 린포체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을 통해

◆행선(Mediation in Action) 티베트 불교를 처음 영국으로 전한 트롱파 린포체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을 통해

http://www.sunjalaraboo.com

###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영혼을 잃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찾는 일을 할 기쁨을 원하십니까? 영혼을 잃고 싶습니까? 영혼을 찾는 일을 할 기쁨을 원하십니까? 영혼을 잃고 싶습니까? 영혼을 찾는 일을 할 기쁨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영혼을 잃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찾는 일을 할 기쁨을 원하십니까?

선재야 박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ialaraboo@yahoo.com 서울시 서대문구 북이문로 114-1 북이문역전 2층 502호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 제18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본 협회에서는 각 사찰의 어린이, 학생, 청년회 지도자들은 물론 각 수행 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제18기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교화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간: 불기 2546년 9월 16일 ~ 11월 24일 (중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2회 오후 3시 ~ 9시)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사익복지재단 (조계사 건너편)
- 대상: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선착순 30명)
- 강좌내용: 이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스피치법, 모임진행법, 프로그램작성법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레크리에이션포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댄스, 스포츠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 율동 지도법, 잔불가  
생활부문 - 만들기, 종이접기,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실외게임, 전래놀이  
야외활동 - 캠프, 오리엔티어링, 야외장비사용법
- 참가비: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분납 2회 가능)
- 온라인접수: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계성)
- 문의: ☎ 02-738-7860 본회 사무국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urec)
- ※ 특전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재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고시 응시자격 부여 (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禪 心理治療의 科學的 接近

佛敎宗에서 “남을 떠나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능히 호·환·희의 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음의 안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기근인데, 특히 肯定的 思考의 중요성 및 多佛의 결단력 가지는 한 시점에서 새롭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흔히 六識을 통해 느끼는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단순한 抽象的인 思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뇌가 활동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결과들은 모두 물질화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즉, 단순한 생각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억 단백질 디옥시리보핵산(DNA: Deoxyribo-nucleic Acid)이 장중하고 리보핵산(RNA: Ribonucleic Acid)을 합성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의 단백질 분해방법은 서로 다르다.

한편 阿含宗에서 “사람 몸은 부부의 정기를 받아 어섯 가지 감각기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DNA 복제합성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행위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佛敎) 관에서는 신체적인 유전은 것은 물론이며, 또 다른 유전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유전인자로 된 意識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의 광복상태가 補力되어 이의외적으로 이식되면 이 교의 영향으로 생명의 행위에 적합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 수백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고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자신이 만든 意識으로 인해 유전 계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런 까닭에 본행에서는 자기 개인의 사고와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때를 명심하셨는데, 특히 깨달음을 향한 각자의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다시금 인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1) 肯定的 思考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인 사고를 즐기고 禪修行으로 깊은 명상에 도달하면 인체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 항상성, 생체 항상성이라는 케케니즘이 적용을 받아서 호르몬의 인종인 腦內 모르핀을 분비시키며, 그와 동시에 뇌가 波(1-30Hz) 상태에서 미들 波(10 Hz, 우리에서 방송) 상태로 다시 波(1-7Hz)로 파장이 감소하면서 시상상과 시상하부 사이에 있는 부러리 동굴(W. 에스테스)에서 수치가 증가되고 이 상태에서는 意識世界와 潛意識世界가 하나로 통합되어 긍정적인 사고와 독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신물력이나 초능력도 발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 뇌 가운데서 가장 진화한 전두엽(前頭葉)이 활성화된다. 전두엽이 자극을 받아 腦內 모르핀이 분비된 경우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네가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 反饋)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현상이 작용하지 않고, 이때 腦內 모르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물질인 8-아세틸도프린 등 도파민 호르몬(다중적인 Amphetamine, 에인 타민, 티로신 등)과 유사분자구조를 갖고 있는 쾌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소멸시키고 쾌감을 느끼게 하며, 항암시약(抗癌藥)도 화물여기 위식이 억제되고 潛意識의 교류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禪修行을 통하여 후 번뇌(後)가 끊어지고, 세 번뇌(前)도 거의 끊어진 상태 즉 禪心(禪心)이 완성된 깨달음의 경지인 그 때에 가장 도달하게 된 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腦內 모르핀의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뇌의 뇌간과 대뇌변연계 그리고 대뇌신경질로 구성되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을 조절하는 뇌는 에이 엔(A10)이라는 신경이 들어 있다고 하며, 미국 L.A. 사이언스 연구센터에서는 원인과 조식을 활용하는 심리치료를 응용하고 있다.

2) 否定的 思考  
반면에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우를 佛敎에서는 집착에 의한 욕망과 그것을 향하여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윤회에 매여서 영면이 못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신기하게도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사고는 8-아세틸도프린 분비될 호르몬을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시킨다. 즉,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 바로 그것인데, 이 물질 자체도 독성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 더욱 강한 독성을 띤 활성산소(OH·NO2 活性酸)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부정적 사고가 冥心(冥心)을 형성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어원은 한스 셀러에(Hans Selye)의 생체 스트레스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무명업에 의한 근본번뇌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② 노이로제(신경증)  
노이로제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Cullen)이라는 의사가 1776년부터 사용하였는데, 그는 유기적 원인이 발견될 수 없었던 모든 신경병에 적용했으며, 현재까지 병리학적인 기초조사결과가 따르지 않는 신경병에 대한 집합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1911년에 Bleuler E.가 소개하였다. 흔히 정신병(psychosis)으로 알려진 장애인데, 다른 어느 정신장애보다도 가장 심한 장애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통제하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다.

禪修行의 목적은 科學적으로는 意識世界에서 미들 波(1-30Hz)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多佛의 상태는 전기적 60Hz의 활동이 정지되고, 거꾸로 이에게서 佛敎적으로서 억압 당하고 있던 제1차원적 60Hz와 제2차원적 60Hz로 전이되어 카르마의 意識世界까지도 감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Tel: (02)738-1275/(02)326-0248